통영지역 최초 불교대학 설립돼

대성암, 8월 26일 제1기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통영지역에 첫 불교대학이 탄생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은 8월 26일 사찰 경내에서 불교대학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내빈들의 인사말 및 축사로 진행됐으며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입학식에는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종묵 스님, 쌍계사본말사협의회회장 이암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고성 청련암 원각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입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장 승원 스님은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불법에 대해 바른 이해 없이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고 불교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쌍계사본말사협의회회장 이암 스님은 "불교는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증득한다'는 신해행증의 종교"라며 "불교대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바를 실천하고 널리 회향해 성숙한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종묵 스님은 "통영에 새로운 불교 수련장이 문을 열었다"며 "이 지역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 삼아 불국토의 초석을 이루도록 모두가 마음내자며, 대성암 불교대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불교교양대학으로 18명 입학
향후 신도교육기관 확장계획
매주 목요일 오후7시에 수업

입학생을 대표해 정종선 불자는 발원문을 통해 "신 · 구 · 의 삼업을 녹이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무진 번뇌를 녹이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앞서 간 수행자를 모범으로 삼아 배우고 도반들과 함께 불도의 길로 나아가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서원했다.

대성암 불교대학은 경남 통영 지역 첫 불교대학으로 불교교양대학으로 운영을 시작해 조계종 신도교육기관으로 등록, 커리큘럼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 대성암이 통영지역 내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사진은 입학식 모습.

현재 입학생은 18명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불교입문〉과 〈부처님 생애〉를 교재로 8주간 교육이 진행되며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인 스님, 원각 스님(고성 청련암 주지), 원명 스님,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강사인 정인 스님은 前 중앙승가대 교수로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30년 동안 중앙승가대에서 후학 양성에 앞장섰으며, 2018년 2월 정년 퇴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이며 1991년 창원 불지사를 창건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유근자 교수는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과 사단법인 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졸업식은 12월 6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의 증명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궁금증 불러일으키는 황복사 터 유물들

'傳 황복사 터 출토 신자료' 展
신라천년보고서 10월 24일까지
승려 신분증 추정 목간 등 유물
2700여 점 중 32점 선별해 공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라천년보고(영남권수장고)에서 '傳 황복사 터 출토 신자료' 특별 공개 전시를 개최한다.

1920년대 후반, 경주시 낭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황복사 터에서 기단석으로 사용되던 십이지신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42년에는 절터 내 삼층석탑에서 사리갖춤이 발견됐다. 이후 몇 차례의 부분적인 조사가 더 진행됐고,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 2016년부터 (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로 2700여 점의 유물을 발견했으며, 그 중 32점을 선별하여 이번 전시에서 특별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불교조각, 명문자료, 공예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교조각으로는 7점의 금동불입상이 발견됐다. 금동불입상에서는 크게 'U'자형과 'Y'자형, 두 가지 유형의 옷 주름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불상이 오른손을 들어 두려움을 없애주고(施無畏印), 왼손을 내려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與願印)는 수인을 하고 있다.


황복사지서 출토된 금동불상 일괄.

관음보살로 추정되는 보살상은 장식이 달린 목걸이와 함께 왼손에 깨끗한 물을 담는 정병(淨甁)을 쥐고 있다. 돌에 새겨진 신장상은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의 모습이다. 마치 돌에서 걸어 나올듯한 입체적인 조각과 사실적으로 표현된 옷 주름은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의 정수를 보여준다.

돌과 나무에 글자를 새기거나 적은 유물은 절터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전 황복사 터에서는 '▫봉(奉)▫, ▫교(敎)', '▫신(神)', '궁(窮)', '진(真)'이 새겨진 비석 조각이 수습됐다. 또 연못 터에서 발견된 목간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적외선 촬영 결과 '上旱(軍)寺迎詔(誘)沙弥廿一年'이라는 10글자의 묵서가 판독됐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목간 끝부분에 구멍이 있어 승려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또는 물품의 꼬리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황복사 터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식품과 생활용품들은 사찰 건축물 내 · 외부를 아름답게 장엄하고, 거처하는 스님들이 사용한 생활용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원모양 금동장식과 불꽃모양 금동장식, 발이 세 개 달린 청동그릇, 청자병, 녹유벼루 등이 연못 터와 건물 터에서 발견되어 당시의 사찰 규모와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 황복사 터가 자리한 낭산은 〈삼국사기〉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니는 복 받은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낭산에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고, 신라의 대표적 호국사찰인 사천왕사 터가 남아있다. 낭산은 신라 왕실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새로운 자료들은 당시 신라 왕실 사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황복사의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광주불교聯, 캄보디아 아동의류 지원

8월 31일 광주 광산구청에 기금 전달

광주 불교계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8월 31일 광주 광산구청(청장 김삼호)을 방문해 '캄보디아 아동 의류' 300벌(300만원 상당) 구입기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사)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법륜사 월인 스님, 김삼호 광산구청장, 오윤순 광산구청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은 광산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 도시의 아이들에게 여름용 면티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현지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에 맨몸으로 여름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 광산구에서 자매도시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성 스님은 "코로나19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모든 국가에 큰 시련을 주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어린이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보내는 작은 선물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연음식 도시락' 나눔

9월 1일 지역 방역관계자, 복지시설에 전달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9월 1일 코로나19로 지친 방역관계자와 의료봉사자들에게 '연음식 도시락 나눔'을 펼쳤다.〈사진〉

이번 '연음식 도시락 나눔'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후원하고 '나 · 비 · 채(나누고 비우고 채우고)' 정신을 실천하는 송광사가 주관했다.

완주 송광사는 경내 백련지에서 자란 연잎과 연근으로 만든 연잎밥과 연근 샐러드 등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재료로 정성껏 850인분의 연음식 도시락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음식 도시락은 완주군청과 지역 행정복지센터, 소양 파출소, 소방서 등 방역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마음사랑병원(250개), 송광정심원(220개), 금선백련마을(60개), 은혜의 동산(50개), 선덕보육원(50개) 등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도 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주 관음사, 백중 공양물 '회향'

주민센터 등 지역에 전달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허운)는 8월 27일 신축년 하안거 해제와 칠석, 백중 회향을 맞아 기도기간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들을 아라동 주민센터(동장 오상석)와 자비원, 연화원 등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사진〉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총무국장 응진 스님, 오상석 아라동 주민센터 동장, 오현숙 주민복지팀장 등이 참석해 물품을 전달했다.

응진 스님은 "관음사는 신도들께서 정성으로 올려주신 칠석, 백중 공양물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기도기간에 신도들이 후원한 수건 10박스, 치약, 칫솔, 비누 등 총 16박스이며, 주민센터와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배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1년도 하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